



양봉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경기도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최 수 호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최대 화두(話頭)는 무엇인가?

일단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질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당연 환경문제와 안전한 식생활, 그리고 경제문제가 일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며 먹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진 부(富)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할 것이다. 특히,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 요즘 우리사회에 관심분야는 암, 아토피, 당뇨, 고혈압, 각종 성인병 등 건강문제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환경」과 「식생활」 때문이다.

벌꿀은 천연식품이자 천연조미료로서 사람들의 건강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꿀벌은 환경오염 지표 곤충으로서 오염된 자연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으며 자연식품들의 화분매개곤충으로서 자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곤충이다.

최근에는 벌꿀만이 아니라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꽃가루, 벌침등이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도움을 주는 자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양봉산업 발전은 이제 양봉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정부기관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얼마전 농촌진흥청 소속 지도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꿀벌전문지도연구회 2차 과제교육을 위해 한국양봉협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조그만 사무실을 보면서 이게 양봉산업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했다. 한국양봉협회는 수원시 소재 농촌진흥청내 농민회

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듯 했다. 양봉인들의 자생적인 민간조직체인 한국양봉협회 사무실은 다른 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양봉관련 서적 및 기록물들을 전시 보관하기에도 좁아 보인 듯 했으며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 연구소도 다른 민간연구소에 비해 실험실과 분석실 등이 너무 비좁은 듯 보였다.

이러한 가시적인 양봉현실을 기초로 하여 나름대로의 한국 양봉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을 몇가지만 열거해 보고자 한다.

II. 경쟁력 강화의 문제점 또는 걸림돌

1. 주체적인 측면

- 양봉인들의 주인 의식 및 공동체의식 부족
- 전문양봉경영인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2. 생산기반 측면

- 양봉시설등이 타 작목등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부업,겸업형태가 많다
- 시설 및 기기에 표준규격 및 모델이 없고 이에 따라 시설 기술적 측면에 일관성이 없다.
- 양봉의 기계화, 자동화가 아직 미약하다
- 우량종봉에 대한 기술 및 개발연구가 미흡하다
- 밀원식물이 매우 빈약하다.
- 봄철 종봉은 수입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 양봉에 대한 담당부서, 연구기관, 시험연구기관이 없다
- 양봉 관련업체들이 매우 소규모로서 열악하다

3. 사양기술 측면

- 꿀벌응애, 부저병 등 병충해 피해가 크다
- 벌꿀생산, 로얄제리생산 등 양봉산물별 기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 환경제어 조절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



4. 유통, 가공, 수출

- 소분시설 등 유통시설이 부족하다
- 생산자단체의 계통출하 및 자체 수급조절 기능이 미흡하다
- 봉산물별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미흡하다
-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에 대한 건조, 저장, 보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5. 연관산업분야

- 국내 중봉 전문 공급업체가 전무하고 사업 발전이 더디다.
-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다
- 분업화, 계열화가 부족하다

6. 생산자 협동조직화 문제

- 법인형태의 양봉생산자 조직이 적다
- 품목별 조직중 양봉분야의 활동범위가 좁다.(기술적 측면만 강조됨)
- 양봉협회, 양봉조합의 양봉인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자체 규모화가 열약하다(자체 안정적인 수익사업 필요)
- 양봉산업 장기발전전략 등 마스터 플랜등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Ⅲ.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1. 양봉인(養蜂人)들의 인식(認識) 및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아울러 주인이 누구인가부터 생각해보고 과거의 관습이나 틀, 그리고 고정된 사고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피땀어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양봉산업의 주인은 양봉협회나 양봉조합도 아닌 양봉인 자신들이다. 당연히 주인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의타정신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봉산업은 아쉽게도 20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게 없으며 노력도 없다고 한다하지만, 최근 몇 년전부터 지역단위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로부터 뭔가 변화할려는 용트림이 있

어 보이는 건 참 다행인 것 같다.

얼마전 보건소 부정식품단속담당한테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내용인즉 지역에 사는 양봉농가가 강원도에 가서 양봉을 하는데 한 소비자에게 벌꿀과 함께 꿀보약(벌꿀+로얄제리+프로폴리스+화분)를 팔았는데 그 소비자가 그것을 먹고 탈이 나자 보건소에 고발을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공식품인지 농산물인지 몰라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이면 당연히 식품 허가신고를 하고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담당자한테 된장과 고추장을 예로 들면서 농산물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사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킬테니 선처를 부탁했다.

이 일을 있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다른 농산물등은 정부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에서 수매를 해 주는데 왜 양봉산물은 공식적으로 수매하는 곳이 없을까? 이제는 양봉산물도 분업화를 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양봉조합이나 지역 양봉원에서 개별 수매를 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보장받는 매매(賣買)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양봉인들은 벌을 열심히 키워서 봉산물(벌꿀,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꽃가루)을 생산하고 나면 양봉협회에서는 기준에 의거 품질검사를 하여 등급(특, 상, 중, 하)을 매기고 양봉조합에서는 고가로 수매해서 가공 및 판매하는 시스템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양봉인들은 벌만 잘키워서 봉산물만 생산하면 되지가 가공 및 유통까지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꿀값이 똑같은 이유는 시장(수요자와 공급자)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자동차나 음료수처럼 일부 생산자가 독과점을 하면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 벌꿀은 생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 단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조정은 양봉협회, 조합, 대형 판매업소 대표자가 모여 가격 조정위원회를 구성, 당해연도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유는 폭리를 취하자는 것도 아니라 제값(생산비+



이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계속 養蜂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봉산업은 生命産業이며 환경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면 양봉인들의 단결과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고품질 다수확의 벌꿀을 생산해야 한다. 고품질 다수확의 봉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정 생산시설 투자(비가림시설, 자동사양시설, 계상벌통 등), 노동생산성 향상(자동채밀기 도입, 새벽 채밀방법 개선 등), 새로운 기술정보교환, 꿀단지 개념의 판매방법 혁신 등이 필요하다.

남양주시양봉연구회에서는 2003년 특산품 육성을 위한 남양주 벌꿀 브랜드화 일환으로 2400g 박스와 더불어 600g Pt병으로 소포장(1개, 2개, 3개)해서 금년에 소비자에게 공급했는데 의외로 소비자의 반응이 좋았다. 2400g 꿀병보다 600g 피티병의 장점은 첫째, 택배로 보내도 깨질 염려가 없다는 점 둘째, 600g은 당장 2400g보다 판매금액은 적지만 1주일이면 소비가 되어 결과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높은 소득 향상 셋째, 손가락으로 먹지 않고 짜서 먹으니 집이 묻지 않아 변질될 염려가 없어 불량벌꿀이라는 오해 소지 없음 넷째, 소비자들이 먹기가 편하다는 점 다섯째, 아이들이 수시로 빵에 발라 먹을 수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참기름과 벌꿀은 가짜 농산물의 대명사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설탕꿀과 자연산 벌꿀의 구분과 품질보증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 도입과 홍보가 필요하다.

2. 연중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양봉산업의 가장 취약점은 연중 소득향상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원이 5월 아카시꿀에 소득을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중 소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연중 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수 심기운동을 정부기관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 또한 벌꿀생산 뿐만 아니라 양질의 로얄제리나 프로폴리스, 중봉, 화분매개, 봉독(최근 관절염 및 가축질병에 이용), 꽃가루 등 생산품 및 기능 다양화, 소득원의 다변화 등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김동신 양봉전문경영인은 지난해 잦은 비로 꿀생산이 힘들어 지자 아카시나무 유밀기에 벌꿀 생산보다는 로얄제리 생산에 주력하여 소득을 향상시켜 피해를 줄일수 있었으며 충남 홍성군의 전만기 농가는 4단계상관리에 성공하여 우량 벌꿀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올봄에 중봉으로 판매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한다면 연중 봉산물 생산으로 소득향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3. 꿀벌에 대한 연구 전문기관·지도기관의 확대 및 활성화

우리나라의 꿀벌산업은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소의 되어 왔다.

중국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성(城)급 이상의 양봉과학연구소가 4개(중국 농업과학원, 강서성 양봉연구소, 길림성 양봉연구소, 감숙성 양봉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인재양성을 위해 농업대학에 양봉학과와 대학 양봉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꿀벌에 관한 국가기관의 연구소나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매우 안타까웠으나, 미약하나마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내에 꿀벌분야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양봉연구실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서는 양봉농가들의 현장에로 사할을 해결하기까지는 너무나 부족한 인원이다. 또한 꿀벌사육농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3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꿀벌전문지도연구회가 창립되어 년 3회에 걸쳐 과제교육 및 현지연찬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구성되어 매월 영농기술교육을 통하여 양봉농가 자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예로, 국가기관인 연구소에서 양봉산물이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이롭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수요량이 폭주하여 가격은 오르게 되고 결국, 양봉농가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듯이 연구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대학내 양봉연구실 신설 : 전문학교, 전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 민간 양봉연구소 신설 및 활성화 : 분야별, 기능



별 양봉연구소 신설 필요

- 후계자에서부터 전업농 육성과 연계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4. 양봉생산자 조직 및 기능 활성화와 분업화

양봉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양봉산업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함께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1년 한국양봉협회 회원은 7,180명인데 회비납부 등 실제 활동중인 회원은 3,116명으로 43%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봉인의, 양봉인들을 의한, 양봉인들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Zero Base에서 회비 탕감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과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회원은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무원칙하고 산발적인 검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양봉산물 품질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단위인 도단위 양봉연합회에도 품질검사소 등을 신설하여 도단위 양봉지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등으로 인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어야 한다. 하부조직이 살아 움직이어야 중앙단위 조직도 안정될 수 있듯이 도단위 연합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회비납부등이 불성실한 회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탕감 이전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소속의식과 협회에 가입했을 때 혜택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협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 수입사업을 연구 개발해야 하며 양봉산물 요리, 가공기술 개발 및 홍보 강화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

양봉산업분야에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분업화가 절실하다. 협회에서 할 일, 조합에서 해야 할 일,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 소비자 단체에서 해야 할 일, 양봉인들이 해야 할 일, 민간회사에서 해야 할 일 등 분업화를 도입해야 한다.

5. 기타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필요

이제는 꿀단지의 개념을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소

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품질좋은 양봉관련 상품들이 해외로까지 수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농가들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며 협회, 조합, 회사, 연구소 등에서 발벗고 나서도록 양봉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화시대를 핑계삼아서 둘러 연구기관에 위탁을 주어서라도 양봉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IV. 맺음 말

한국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봉인들이 앞장서서 정부기관【농림부(양봉농가 육성), 보건복지부(안전식품), 환경부(자연환경보호), 국방부(벌꿀납품), 문화관광부(벌꿀축제), 교육인적자원부(벌꿀급식), 농촌진흥청(연구?지도), 산림청(밀원수 및 산림방역)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각계층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이유는 양봉산업이 살아야 건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 21세기 나의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자세로 양봉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래와 같은 5高 戰略을 실천한다면 수입개방화 등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한국 양봉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1. 高技術化 :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고 기술 수준으로 높이는 고기술화
2. 高生産性化 : 다수확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여 나가는 고생산성화
3. 高品質化 : 약리기능을 살리고 소비자 기호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화
4. 高附加價値化 : 요리와 가공제품 등으로 유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
5. 高信用化 : 항생제가 검출 안되고 품질내용을 믿을 수 있는 고신용화